

POLITICS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민주 대선후보들 오늘 첫 TV토론 열린다

‘피고인尹’ 재판 언론에 공개  
재판부, 21일 법정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키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가족별 맞춤형 지원 나서야”  
임성화 서구의원 조레안 발의

광주서구의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다.

17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임성화 서구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명칭 및 설치, 기능, 조직, 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를 비롯해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조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전부 개정이 이뤄졌다.

임성화 의원은 “가족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고 사후치료적으로 제공됐던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전 예방적·통합적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구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1인 가구·한부모·다문화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역량강화사업 등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이기도 한 임성화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광주서구가족지원센터’ 시설 노후와 위치에 따른 이용자 불편 문제 등을 제기, 최근 양동으로 ‘서구 가족센터’가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또 ‘광주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광주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정책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정책·비전 비교 기회  
정치·사회 등 3개 분야··MBC서 80분 생방송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첫 방송 토론회가 18일 열린다.

17일 민주당과 MBC에 따르면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후보가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가 18일 오후 8시 30분 지상파 MBC 주관으로 방송된다.

6·3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첫 번째 TV토론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TV토론이다.

MBC는 이날 ‘특집 100분 토론’ 편성을 통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방영한다.

토론은 정치, 경제·외교·안보, 사회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 후보가 돌아가며 주도권을 쥐고 진행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3가지 주제별 사회자 공통 질문에 각각 40초씩 답변할 수 있고,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에서 추가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주도권을 쥔 후보자에게 주어질 6분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이번 지상파 방송토론은 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비전을 견주어 볼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방송토론 일정을 18일과 25일로 확정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두 번째 TV토론은 TV조선 주관으로 오후 10시에 열린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충청 표심에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약속했다.

대선(AI·우주산업), 세종(스마트행정), 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을 분야별로 특화한 산업 중심지로 만드는 충청권 첨단 산업벨트 구축 구상도 공개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서구청에서 카트리 스테펠렌트 잠메 스웨덴 말피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제조업 도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김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세종시

##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통과

국회·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7일 후 자동임명 조항 포함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이율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

## 전남 문화자원-첨단기술 융합 콘텐츠 ‘눈에 띄네’

영양 ‘금마왕자와 월출산낭자’ 등 국제무대에서 입상 실적  
올해 전통문화 현대화·산업화 콘텐츠 브랜딩 추진 예정

전남도가 지역의 문화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특화콘텐츠를 개발해 국제무대에서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문화콘텐츠를 전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전남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ICT 첨단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전남형 문화콘텐츠,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양군 등 21개 시군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70여개 전남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했다. 영양의 ‘금마왕자와 월출산낭자’, 담양의 ‘Take root in the sky’가 국제무대에 입상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금마왕자와 월출산낭자’는 지난해 전남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영양 금마왕자와 월출산낭자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제작했으며,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서울국제 AI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Take root in the sky’는 지난 2023년 사업비 9억원을 지원해 담당 축원아트센터에서 전시 중인 미디어아트 콘텐츠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문화 전시 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남도 전통문화 현대화 및 산업화를 위해 남도의 색을 소재로 한 ‘남도×오색’ 남도의 이야기들을 느낄 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군 특검법 등 재요구 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마친 뒤 자리를 향하고 있다.

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공약했다.

충북 음성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 청주 4·19 기념탑 참배 후 “세종시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당선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역균형 발달 정책의 일환으로 충청권에 3개의 대기권 도시 조성

설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충청권에서 처음 열린다.

이어 20일에는 영남권에서, 26일은 호남권에서, 27일은 수도권·강원·제주에서 합동연설회가 오후 3시께 개최될 예정이다.

호남권 합동연설회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민주당 광주시당, 26일 호남권 대선 경선 진행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서 호남권 합동연설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오는 26일 경선대회를 진행한다.

권리당원 및 전국대의원 투표는 23일에서 26일까지 실시하고, 합동연설회는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ARS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투표는 2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연설회 종료 후 30분까지 진행된다. ARS 투표는 2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3번 걸

려오는 전화를 받아 참여할 수 있다.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번 걸려 오는 전화를 통해 투표가 가능하며,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는 권리당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대의원은 26일 호남권역 합동연설회 당일인 오후 3시에 투표가 진행된다.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 21일부터 27일 사이 이틀에 걸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투표 50%를 반영하며, 권역별 경선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마지막 경선일인 27일 수도권 대회에서 확정된다. 장승기 기자 sky@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16~17일 제21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은 핵심 공약 수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 안도걸 “민주당, 국가 경제 재도약 책임지겠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서 새 정부 성장 전략 어젠다 발굴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제21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은 핵심 공약 수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간 5개 전략 분야인 미래성장비전, 미래 혁신산업, 금융혁신, K-방위산업, 외교·통상에 대한 분과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의 핵심 어젠다 및 공약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분과별 전략 회의에서 그간 위원회 각 분과별로 토론하고 검토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

션 플랜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분과별 섹션 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한 새로운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K-방산, 금융 혁신, 관세 전쟁에 따른 외교·통상 전략 등 급격한 성장 엔진 프로젝트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